

# 화합, 단결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낙농위기 극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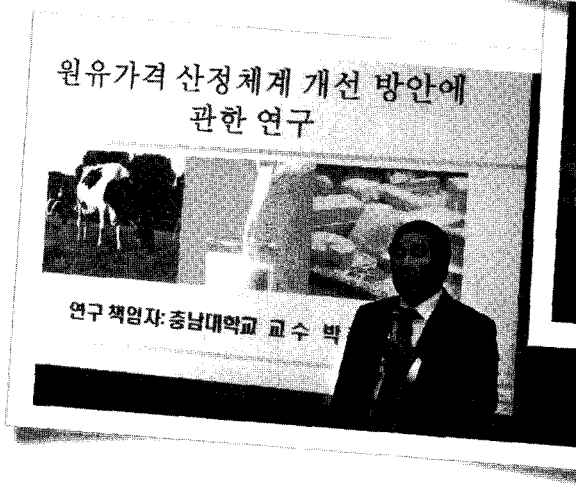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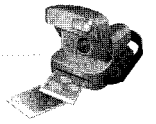


FTA 낙농대책, 원유가격 산정체계 문제 비롯하여 최근 낙농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낙농육우인 지도자들이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안을 모으기 위해 다시금 한 자리에 모였다.

협회는 지난 4월 6일(화), 7일(수) 양일간 대전 레전드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서 임원연수회를 겸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를 100여명의 전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행사에 앞서,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지금, 진정 생산자를 위한 FTA 낙농대책 수립을 위해 결집해야 할 시기다”라며, “전국 낙농육우인들의 화합, 단결 그리고 미래 낙농을 개척한다는 도전정신으로 작금의 낙농위기를 극복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제2회 이사회에서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충남대 박종수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진국과의 산정체계 비교, 계절적 편차를 고려한 유단백 도입 등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와 관련 4월말부터 진행될 농가설명회, 도지회, 낙우회회의 등 농가 여론수렴을 통해 차기 이사회에서 재정정하여 논의키로 했다. 또한 임원개선에 따른 낙농진흥회 이사로 김동현 이사(경북 김천)를 추천키로 하



는 한편, 지난 3월 새로이 선출된 청년·여성·육우분과위원장을 인준하였다. 이사회 직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직 협회 임원, 자조금 관리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낙농특강은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가 “국제화 및 FTA에 따른 낙농산업에의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조석진 교수는 한·미/한·EU/한·오세아니아/한·중 FTA협상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로 유제품 수입범람으로 인한 막대한 낙농생산액 감소를 우려했다. 이에 조속한 낙농제도 개혁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생산자 의견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유소비 확대, 경영의 다각화, 경쟁력 제고, 권익보호를 위한 농정활동 강화, 가치경영 실현 등을 대응방안으로서 조목조목 제시했다.

행사 이틀째인 7일(수) 진행된 지도자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인 FTA 낙농대책 수립, 농가 특별사료구매자 금 상환기한 연장, 축산업 면허제 도입에 대한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으며, 간담회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